

# 〈溪西野談〉의 筆記受容研究

金 相 助\*

## 目 次

- I. 序論
- II. 筆記의 樣式的 特色과 野談에의 受容 根據
  - 1. 筆記의 樣式的 特色
  - 2. 野談의 筆記 受容의 根據
- III. 〈溪西野談〉의 筆記 受容
  - 1. 受容 概況
  - 2. 受容 方法
- IV. 結論

## I. 序 論

근래에 이르러 야담의 연구는 국문학 연구에서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다. 이들은 사회 경제적 관점을 필두로 야담집 자체나 저자 또는 작중 인간형의 연구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야담에 대한 연구 성과만 해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야담의 發生論的 研究는 일찍이 '講談 - 野談'설이 제시된 뒤로 더 이상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

\* 人文大學 專任講師

있는 실정이다.<sup>1)</sup> 그러나 야담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東野彙集> 서문에서 벌써 前代의 문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루트를 밝혀놓고 있다.<sup>2)</sup>

<溪西野談>은 <靑丘野談> <東野彙集>과 함께 3대 야담집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저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李羲準이 아니라 李羲平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나<sup>3)</sup> 이것도 <溪西雜錄>과 <계서야담>이 같은 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얻어진 결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결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서야담>과 <계서잡록>이 같은 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전하는 <계서야담>은 규장각본이 유일한데<sup>4)</sup> 전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5권 후반부와 6권은 그 앞까지에서 나오는 것에 비하여 이야기의 길이가 현저하게 짧으며, 그중에서도 90여개의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 옮겨 왔는지를 밝혀 놓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 이야기들은 원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원전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계서야담>이 야담집 중에서 비교적 初期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담의 발생론적 측면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계서야담>만을 고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일반화시키려면 별도의 검증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 II. 筆記<sup>5)</sup>의 樣式的 特色과 野談에의 受容 根據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먼저 筆記의 樣式的 特色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야담이 그와 다른 양식인 필기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계서야담> 기록자가 이야기를 가져온 원전이라고 밝혀 놓은 책들이 筆記類이어서<sup>6)</sup> 이것이 다른 양식에 속하는 야담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필기와 야담의 양식상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1. 筆記의 樣式的 特色

- 1) 林榮澤, 「18·9世紀의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 2) 李源命, 「東野彙集序」韓國文獻說話全集」(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1981), 권3, p. 1.
- 3) 李賢澤, 「溪西李羲平文學研究」研究論叢 제17집. 國民大 國文學硏究會, 1983.
- 4) <계서야담>이라는 書名은 규장각본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계서잡록>을 <계서야담>의 이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점은 金起東이 계서야담의 해재 (주2)의 전집. 권2. p. 1)에서 말한 이래 盧喜雄 <朝鮮後期文獻說話의 硏究> p. 17) 이현택(앞의 논문) 趙東一(<한국문학통사> 권2 p. 451) 등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자세히 논할 계획이다.)
- 5) 이 글에서 사용하는 筆記라는 용어는 잠정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稗官文學의 의미로 사용한다.
- 6) 자세한 목록은 3장의 표를 참고할 것.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서야담〉의 기록자가 전제하였다고 밝혀놓은 책들은 대체로 필기에 속하는데, 필기는 實用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그 저술한 것은 모두가 우리 東國의 일을 모아 위로는 祖宗의 신령한 생각과 밝은 지혜로 창업하신 큰 덕으로부터 아래로는 공경과 어진 대부들의 도덕·언행·문장·정치 등 모범이 될만한 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典故와 촌락의 풍속으로 세상의 교화에 관계있는 것 중에서 國史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빠짐없이 갖추어 기록하였다.”<sup>7)</sup>

이 글은 〈筆苑雜記〉의 서문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저자의 저술 목적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의 教化에 도움을 주는 것이요, 둘째는 歷史 기록에 빠진 것을 補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教訓’과 ‘事實’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 ‘교훈’과 ‘사실’이라고 하는 두가지 저술 목적은 별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교화에 관계있는 것 중에서 국사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동시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필기류는 교훈적인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저술 목적은 〈필원잡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기류에 해당된다. 이것은 現傳하는 필기류의 序跋을 통하여 쉽게 확인된다.

이러한 저술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필기는 유학 특히 제도론의 연장선상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기가 조선에 와서 성행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필기는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필기는 잡다한 에피소드를 특별한 체계가 없이 수집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기가 과연 아무런 체계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1) 世祖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였다.
- (2) 내가 일찌기 내전에 들어가 감색 무명 호구를 입고 구멍이 난 짚신을 신고, 갓끈은 순무 명으로 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 (3) 비록 漢文帝가 옷을 빨아서 입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검소하지는 못할 것이다.<sup>8)</sup>  
(이야기에 번호를 붙여 나눈 것은 필자가 하였음 : 이하 같음)

위의 이야기에서 (1)과 (3)은 이 글에서 각각 프론로그와 에필로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는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교

7) 表浴沫, 「筆苑雜記 序」 「국역대동야승」(이하 「야승」으로 줄임)(…민족문화추진회, 1982) 권1, p. 665. 其所著述…… 上述祖宗神思睿智 創垂之大德 下及公卿賢大夫道德言行政事之可爲模範者 以至國家之典故閭巷風俗 有關於世教者 國乘所不載者 備錄無遺.

8) 〈필원잡기〉 주7)의 책 p. 673. (1)世祖聖性恭儉 (2)嘗入內殿 見御紺色木綿 穿青草鞋 笠纓用純木 携竹杖 (3)雖漢文幹濯 亦不如是其儉素也.

훈을 증명 또는 강화시켜주는 例話이다.<sup>9)</sup> 필기는 이와 같이 '프롤로그-예화-에필로그'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필기에서 完決된 形態의 最小 段落이다. 필기는 이러한 단락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책 전체로 확대되면 '序文-例話-跋文'의 구조라 하겠다.<sup>10)</sup>

그러나 현전하는 많은 필기류 중에는 단락의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는 물론 책의 서문이나 발문조차 없이 그저 예화만 수집해 놓은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프롤로그-예화-에필로그'라고 하는 필기류의 양식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필기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징표가 드러나며<sup>11)</sup> 이에 따라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도 어렵잖이나마 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서문이나 발문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기에서 하나의 단락은 위의 예와 같이 하나의 예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예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때 단락에 참여하는 예화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유기적 관련성을 갖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들이 하나의 이야기 테두리 안에 묶일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나온다. 따라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동안은 한편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예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의미면에도 같은 방식의 영향을 미친다. 즉 한편의 이야기였을 적에 가능했던 다양한 해석이 예화가 되면 그 중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부합하는 하나의 해석만이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필기도 그 나름대로의 짜임새가 있다 할 것이다.

## 2. 野談의 筆記 受容의 根據

필자는 앞에서 '교훈'적인 '사실'의 기록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점은 모든 필기류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한가한 사대부들의 소일거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책의 내용도 달라진다.

9)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독립된 한편의 이야기는 '이야기', 그렇지 못한 것은 '예화'라 하고, 구분의 필요가 없을 때는 '에피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0) 필기류 중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본고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11)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목에 나타나는데 錄, 日記나 漫筆, 雜錄, 雜說, 雜記 또는 閑言, 閑話, 破寂錄, 奇異, 筆談 등이 그것이다. 독자는 이와같은 제목을 통하여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도 이 책들이 필기라고 하는것을 알게 된다. 물론 이 경우 필기라는 결론은 하나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추측은 그 책을 읽어가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村談解頤〉는 無爲자가 지은 것이다. …… 책이 다 되자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하였다. “옛날 성현들이 책을 써서 말을 남긴 것은 모두가 그것을 후세에 남겨 커다란 가르침을 세우려 하는 것이었으니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사께서는 골제스러운 말들을 주워 모아 책을 만드시니 잡스럽고 의미가 천박하여 군자들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거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精粗가 없으니 지극한 이치는 자체 내에 있으며, 말은 純雜이 없으니 귀가 순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滄浪歌를 취하여 탄식하고, 맹자는 陽貨의 말을 취하여 인을 말씀하셨으니, 비록 더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좋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sup>12)</sup>

유자로서 해이적인 이야기를 모아 책은 만든데 대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이 글에서 필자는 책의 내용이 교훈적이거나 (역사의 기록을 보충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와 같은 저술 행위가 잘못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모든 일은 본래부터 精粗의 구별이 있고, 말은 純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저술 행위를 변호한다.

책 내용이 '사실'에서 '解頤'로 바뀌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교훈'적인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 기록을 보충하고 독자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는 필기 본래의 저술 목적의 변질을 의미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글에서는 '해이' 거리를 읽는 데에도 '교훈'적인 '사실'의 기록을 읽는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불가능하면 교훈거리를 찾아내기라도 해야 한다고까지 강변한다. 이것이 바로 燕書野說이다.<sup>13)</sup> 이것은 물론 자기 변호를 위한 일종의 억지다. 그러나 이 억지가 가능하게 된 데는 이들을 구분하여 인식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모름지기 책은 교훈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독자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분화된 인식 태도는 野談에까지도 연장된다. 이것은 「溪西雜錄序」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옛날 아는 것이 많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선비는 반드시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책은 하나가 아니지만 어떤 것은 허탄한데 가까우니 〈水村天倪〉가 그것이며, 어떤 것은 상스러운데 가까우니 〈儻齋叢話〉가 그것이다. 또 어떤 것은 순수하지가 못하고 불경한데 가까워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다. 오직 이 책 〈溪西雜錄〉:인용자주)만은 허탄하거나 상스럽지 않고 주워 모아 기록한 것이 불경한 탄식이 없어서 野乘에서 기록하지 못

12) 姜希孟, 「村談解頤自序」 주2)의 전집 권7, p. 71. 村談解頤者 無爲子自著也. ……書既成 客有過者 曰古昔聖賢 著書立言 皆垂世立教之大者 非苟爲也. 居士乃 滑稽之言 著之爲書 無乃雜而意淺 不見信於君子歟. 居士曰不然. 事無精粗 至理斯存. 言無純雜 耳順則解. 是以滄浪之歌 孔子歎其自取 陽貨之言 孟子取以論仁. 事雖鄙俚 燕書而程說之 何有於不可.

13) 이 말은 野說燕書說을 필자가 변용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도리에 맞게 해석한다는 의미다. (〈韓非子〉「外儲說」 참조)

한 것을 보충해 준다.<sup>14)</sup>

〈계서잡록〉은 야담을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잡록이라는 필기류 서명이 사용되고, 〈수춘천예〉나 〈용재총화〉와 같은 패설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고 있다. 이것은 야담집 〈계서잡록〉이 이들 필기류와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러한 인식 태도는 비교적 후기에 만들어진 〈동야휘집〉의 서문에까지도 나타난다.

稗官과 野乘은 墳典子集에 이름지 못한 것이니 문장가들이 깊이 불만 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보고 들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널리 수집하여 역사의 빠진 것을 보충해 주고 담소거리를 제공해 주니 문장가들이 덮어두기만 할 것도 아니다. 우리 나라는 패설 작가들이 계속하여 나와 각자 보고 들은데 따라 수집하여 책을 이루어 놓았으니, 계가들이 이름하여 놓은 책마다 짝말짝막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기록에 누락된 것이 많고 일을 증명할 수 없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sup>15)</sup>

이 글에서 야담에 대한 필자의 몇 가지 인식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야담과 패설 즉 필기는 동일한 개념이며, 둘째 그것은 본전자집을 공부하는데 이름지는 않지만 역사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 내용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야담에 대한 필자가 생각하는 대전제라면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는 야담집이 많은데 이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가 없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야담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의 〈동야휘집〉 편찬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이루어진다. 즉 故實을 증명할 만한 이야기를 가려 뽑아 윤색하고 제목을 붙이고 각단의 끝에는 論斷을 붙이는 것이다.<sup>16)</sup> 이것은 교훈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필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야담을 포함한) 정통적인 필기류 양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들이 유전하는 현상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분명한 '사실'로 믿을 수 있게 고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려 뽑고, 아울러 사실을 기록하는 사전의 형식을 본받아 논단을 붙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야휘집〉에서 전대의 문헌이나 구전하는 이야기를 개변한 방향이다. 그만큼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려는 태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야담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에 힘입어 필기류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4) 沈能叔, 「溪西雜錄序」 「後吾知可」(후손가장본) 권5. 古之博雅好奇之士 必有所著 流傳於後. 然所著不一 或近於誕 水村天倪是已 或近於俚 備齋叢話是已. 又或駁焉不經 不足示於來許者有之. 獨此錄的採聞見 無誕俚之說 兼實記述 無不經之歎 補野乘之所不載.

15) 李源命, 「東野叢錄序」, 주2)의 전집 권3, p.1. 稗官野乘 不利於墳典子集 固文章家所不耽看 而其披異聞博奇覽 備史乘之闕遺 資笑談之樞紐 亦文章家之不宜東闈者也. 我東稗說作者接武 各隨聞見 蒐集成書 諸家之名目 舛舛鱗鱗 片辭鎖錄 滔滔一轍 而傳記多闕 事蹟莫徵 豈不惜哉.

16) 위의 글. 據其篇鉅話長堪故實者……并修潤載錄……題句標識……各斷之下輒附論斷.

### Ⅲ. 〈溪西野談〉의 筆記 受容

그러면 야담의 전대 문헌의 수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야담이 전대의 문헌을 수용하여 발달한 증거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동야회집〉 서문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於于野談〉과 〈記聞叢話〉라고 하는 책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책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모아서 고치고 윤색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 자료는 주로 야담의 구비 설화 수용이나 전대 야담집의 개편 수용에 대한 증거자료로만 이용된 감이 있다. 그 원인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야담을 설화로 보는 연구 태도다.<sup>18)</sup>

그러나 이보다도 더 커다란 이유는 야담 발달에 있어서 전대 문헌의 수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없이 야담에 수용되는 전대의 문헌은 〈於于野談〉이나 〈記聞叢話〉 같은 기왕의 야담집이려니 생각하고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야회집〉은 야담집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 책이며, 따라서 초기의 야담집들도 이와 같았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초기의 야담집들은 전대의 어떠한 문헌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1. 受容概況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계서야담〉의 5권과 6권의 원전을 밝혀 놓은 이야기들은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 이들을 원전과 비교해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초기의 야담집이 전대의 어떠한 문헌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편자가 직접 밝혀 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

〈계서야담〉 5권과 6권에서 출전을 밝힌 책과 수록된 이야기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위의 글 余於長夏調荷 偶閱於于野談記聞叢話 頗多開眼處 惟是記性衰耗 無以領略萬一 遂就兩書 據其篇鉅話長 堪故實者. ……旁及他書之可資該洽者 并修潤載錄.

18) 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이 야담이 설화라고 하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헌 설화는 구비 설화를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나 구전되던 설화가 문헌 설화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승의 매개체가 문자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양자는 근본적으로 설화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즉 설화의 특성인 허구성, 구전성, 서사성, 산문성과 같은 것은 양자가 내포하는 공통적 특징이다." (조희웅 앞의 책 p.1)

公私聞見錄	14, 27, 70, 96, 117, 121, 122, 125	終南叢話	136
菊堂俳語	29, 46, 56, 57, 58, 66, 137	竹簡閑語	10
寄齋雜記	11, 38, 51, 52, 88, 91, 104, 105, 123	竹窓閑話	77
東閣雜記	25, 33, 113	芝峯類說	34, 37, 53, 54, 55
東人詩語	67	青陵劇談	59, 61, 68, 69, 73
夢芸雜記	132	太平閑語	48, 49, 50
補閑集說	5-22	巴人識小錄	115, 119, 120
思齋雜言	5-20, 36, 85	巴山人識小錄	62
松溪漫錄	47	稗官雜記	110
松高雜說	60, 92	筆苑雜記	31, 41, 74, 83, 90, 112, 114, 124
五山說林	8, 22, 87	閑居漫錄	5-21, 19, 28, 43, 81
備齋叢話	82, 84, 103, 108, 128, 134	壺谷詩話	133
龍泉談寂記	35, 75	檜山雜記	16
月汀漫錄	116	檜隱雜記	20, 30, 32, 111
紫海筆談	89	玄湖瑣說	102
靑湖詩話	99	蟾鱗瑣語	42

\*1) 표의 숫자는 <계서야담> 권6에 수록된 순서다. (이하 이야기의 번호는 모두 권6의 순서임. 단5-00은 5권)

\*2) 책명은 널리 사용되는 것을 대표명으로 썼으나 다음과 같은 이칭도 나온다. (이중에는 이칭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이름도 있다.) 그러나 책명이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과 다르더라도 <계서야담>의 표기에 따랐다.

공사문견록:公私記聞錄, 국당배어:菊堂俳語, 기재잡기:寄齋雜說, 동각잡기:東岡雜記, 사재척언:思齋雜言, 송와잡설:松窩雜記, 용재총화:備齋叢語, 備齋雜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청과극담:靑坡別談, 필원잡기:筆苑雜說, 筆記雜記, 한거만록:閑溪漫錄, 회은잡기:檜隱雜識, 檜軒雜錄

\*3) 이밖에도 <죽창한화>와 <죽간한어>, <파인지소록>과 <파산인지소록>은 동일한 책으로 생각되나 확인할 수가 없다.

\*4) 이 표에 기록한 것은 <계서야담>에서 밝혀 놓은 것만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조희웅이 추가하여 찾아 놓은 것(앞의 책 부록 참고)이나 필자가 찾은 것은 제외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서야담 편자의 전대문헌 수용의 폭은 상당히 넓다. 이중에는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이미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도 있다. 그런데 기록자가 전재한 전대의 문헌을 밝히면서 엄정한 고증을 거쳤는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첫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책인데도 이칭이나 잘못된 이름이 상당히 많다



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용재총화〉나 〈회원잡기〉 같은 책은 3개 썩이나 되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원전을 밝힌 것 중에도 착오가 분명한 이야기가 발견된다. 이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으나 한 예를 들어 〈필원잡기〉에서 전제하였다고 밝혀놓은 ‘明宗이 슬취한 尙震을 감싸준 이야기’(124화)는 상진의 생물연대(149;成宗24-1564;明宗19)와 〈필원잡기〉의 편자인 徐居正의 그것(1420;世宗2-1488;성종19)을 고려해 볼 때 착오가 분명하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서야담〉에서 전제하였다고 밝힌 것들은 엄격한 고증을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착오 말고도 〈계서야담〉의 기록은 기록자가 밝혀놓은 원전의 기록과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야담과 필기의 양식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는 별도로 미루고 주로 양자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受容方法

### 1) 原典 이야기의 一部 受容

그러면 위에서 거명된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계서야담〉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르며 그와 같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계서야담〉과 원전의 기록에서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차이는 이야기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전 이야기의 일부가 생략되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생략이다. 예를 들어보자.

① 成察訪汝權 爲人迂詭.

② 嘗言人不可不知天文,一日把松炬升茅屋 仰觀星宿 俯看天文書 不覺炬火落 屋上,俄而火起 成驚惶跳下 曰近日火星光芒 果有火災 天文信不虛矣.<sup>19)</sup>

〈菊堂俳語〉에 실려 있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迂詭’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이 이야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야기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프롤로그의 역할이다. 이 이야기는 事件談이 아니라 性格談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한 단어에 힘입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성여훈이 지붕에 올라가서 失火를 한 사건의 기록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가 迂詭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例話에 불과하다.

둘째는 앞의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성여훈의 성격이 우체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화 사건은 그가 ‘우체’한 성품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이야기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 이야기에서 기록자의 관심은 성

19) 〈菊堂俳語〉 규정각 소장본.

여훈이 저질렀던 어처구니 없는 실화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우케'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서야담>으로 옮겨지면서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이 생략된다.<sup>20)</sup> 이것은 필기류 양식에 있어 필수적인 성분이라 할 수 있는 프롤로그의 생략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적으로는 사소한 변화에 지나지 않지만 이야기의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성여훈이 '우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야기에서 그가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화 사건담으로 이야기의 근본적인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여훈의 실화 에피소드는 그가 '우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성격 예화에서 독립적인 사건담으로의 변화도 아울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개의 예화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순차적으로 제기된다. 여러개의 예화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야기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생략은 여러개의 예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연결 고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던 여러개의 예화들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필요한 결속력을 상실하고 각각이 독립된 이야기로 변한다. <계서야담>에서는 이러한 경우 여러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41화는 成石磷에 대한 이야기로 <필원잡기>에서 따왔다.

① ④ 成文景公石磷 少有儻奇節. ⑤ 嘗爲楊伯顏幕下禦倭 失律當刑. 公假寢 有人告曰 公著藁冠 無爲也. 公自解曰 藁冠藁裏頭 不祥莫甚 竟貸死除名. 後爲相曰 吾夢藁冠 高官也.

② ④ 早年 興四五同僚在政房 辛旽負手傍觀 指文景 曰後爲終必大顯 福德非諸君所及 卒如其言. ⑤ 老賊亦復具眠

③ ④ 公年六十 慈氏亦年踰七十 病革 瞑目不言數日 藥餌無効. 公焚香祈禱 哀號幾絕. 俄而慈氏曰 是何聲也. 侍者驚喜曰 祈禱聲也. 慈氏曰 天遣人賜几杖曰 有子至誠如此 可扶而起 病尋愈 ⑤ 人皆嘆文景孝誠之篤<sup>21)</sup>

이 이야기는 세계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본래 아무런 유기적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단지 역사적 인물이었던 성석린의 사람됨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거두어졌을 뿐이다. 이들이 한 묶음으로 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패관잡기>가 역사 기록의 빠진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하는 목적을 갖는 필기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저술 목적에 따라 잡다한 에피소드가 모아지는 필기류는 이들 잡다한 에피소드들이 저술목적(이것이 프롤로그에 나타난다.)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의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20) <계서야담>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成察訪汝薰以爲人不可不知天文……. (<계서야담>, p. 518.)

21) <필원잡기> 주 7)의 책 p. 676.

이것이 〈계서야담〉으로 옮겨지면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더 이상 역사의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고 하는 필기류의 목적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에피소드로 구성 되었으면서도 유지되고 있던 〈폐관잡기〉의 유기적 통일성은 없어지고 각 에피소드들은 별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된다. 〈계서야담〉에는 이렇게 된 이야기들 중에서 맨 처음의 에피소드 하나만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편의 별개의 예화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야기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 생략이 되지 않는다. 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73화는 〈청과극담〉에서 따온 것으로 황희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다.

- ① 黃翼成公喜 當世宗爲春相三十年 喜怒未嘗一見於言面 遇童僕有恩 未嘗加以箠楚 所幸侍婢與小奴戲虐甚押 公見輒笑 嘗語曰奴僕彼亦天民 豈合虐使之也 至爲書以遺子孫
- ② 嘗獨步園中 隣有狂童投石 有梨方熟 零落滿地 公大聲呼侍童 狂生謂呼侍童 必拿吾輩去也 驚懼皆走 匿暗中潛聽之 侍童至 則曰將柳器來 器來則曰將梨以與隣生 竟無一言 (\* 〈청과극담〉에는 喪으로 되어 있으나 〈계서야담〉에 의거 '器'로 바로잡음)
- ③ 李文康公石亨 壯元及弟 直拜正言 投謁於公 公出網目一帙 命文康書題目 俄而有一惡婢持小饌倚公坐俯視文康 仍謂公曰 將進酒 公徐曰姑安之 婢更倚立良久 厲聲曰 何遲遲也 公笑曰進之 既進之 則有小童數輩 皆藍縷銜足 或挽公髻 或踏公衣 盡携其饌而食之 且歐公 公曰痛矣痛矣 小童者 皆奴婢之兒也.<sup>22)</sup>

이 이야기는 전체가 3편의 예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황희가 너그럽고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청과극담〉에서 이 이야기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수록한 이유도 바로 이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에 따라 작자는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3편의 에피소드를 하나의 묶음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서야담〉에 기록되면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성석린의 이야기와 달리 3편의 예화가 한편도 남김없이 거두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3편의 예화들이 내용상의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서야담〉에서 전대문헌을 수용하는 태도는 이야기의 구조적 짜임새보다도 내용을 더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삽화적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는 야담의 존재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계서야담〉에는 여러개의 에피소드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상당수 있는데 모두가 비슷한 내용의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야담을 검토하면서는 짜임새의 유기성보다는 에피소드 상호간의 내용상의 공통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2) 〈청과극담〉「야승」 권2. p. 530.

## 2) 原典 이야기의 添加受容

지금까지 필자는 <계서야담>에서 전대 문헌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원전 이야기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있는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비하여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첨가 수용에서 제일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史評 形式에서 볼 수 있는 '史氏曰'의 첨가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제11화는 <기재잡기> 권2에서 나왔는데 忍齋 洪暹이 술을 마시고 許沆을 찾아가 金安老를 비방했다가 죽을 뻔 했던 이야기다.

① 洪領相忍齋 以吏曹正郎 乘醉往見吏曹參判許洽 言間頗優安老 且曰秦檜傳不可不使見之. 洽亟止之曰 正郎醉矣 何言之率爾也. 吾雖聞之 寧忍漏之 然公大醉 須速還家. 洪曰歸路 且欲見季令公大意也. 洽愕然曰 老夫參公堂上 醉而來見 猶之可也 與吾弟既無分 且是法官之長 或小失禮 所關非輕 切勿往也. 仍呼洪下人 戒令直還本家 勿得他往. 洪遂辭出 直向沆家 下人不得止之. 洽使人探之 果已到矣. 洽曰吾過矣. 使吾下人勸還本家 則必無此事 大禍今起矣 急馳馬去 則洪已還矣. 洽曰洪正郎大醉 不省人事 來此有何言 令公亦見而知之矣. 沆遽曰顏如白玉者 何醉也 但無所言耳. 洽曰外雖如此 其實大醉 雖有所言 何是與較. 沆不答 洽無可奈何而還. 沆抵安老家 翌朝獨啓之 鞠之成獄 一日受一百棍 氣息奄奄幾絕. 乃流之海邊 方未出獄 骨節盡碎 呼吸不出 謂之已死. 置之墻下 覆以草席 群鴉下噉 引頸而還飛去 亦昏昏似睡. 忽聞呼委官聲者三 判府使以下 緇趨下迎 公開目視之 乃公也. 公暗謂寧有是耶. 其後三十年 公既入相 以委官坐禁府 其時執杖者 尚在云.

② 人之死生 本在於天 雖有百許沆 其能殺一忍齋哉. 洽之於沆 其可以魯衛視哉?<sup>23)</sup>

<기재잡기>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는 홍섬의 강개한 성품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끝 부분의 운명론적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첫째 강개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홍섬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세도가였던 김안로를 비방하였는데 이를 안 김안로가 홍섬을 죽이려 하였으나 끝내는 죽이지 못하였으며, 둘째 이것은 김안로에게 홍섬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이 이야기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덩어리다. 다시 말하면 "사생재천"의 운명론은 꼭 <기재잡기>에 실려 있는 '홍섬이 당한 김안로의 행악 사건'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들을 서로 떼어 놓으면 이야기의 성질이 전혀 달라진다. 그런데 이것이 <계서야담>에 기록되면서는 ②의 이야기 앞에 史傳의 史評처럼 "史氏曰"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다.

23) <기재잡기> 「야승」 권13. p.二三.

주지하다시피 사평은 역사가가 단순한 역사 사실의 기록자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야기 내에서 사평을 이끄는 말이 가지는 기능이다. 사평을 이끄는 말은 역사 사실의 기록이 끝나고 역사가의 의견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 구실을 한다. 〈계서야담〉 6권 제11화에 첨가되어 있는 “사씨왈”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이다. 즉 ‘홍섬이 김안로에게 죽임을 당할 뻔 했던 사건’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은 “史氏曰”이 첨가되면서 앞의 이야기와 일정한 거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의 이야기는 ‘홍섬이 술에 취하여 김안로를 비방했다가 당한 횡액’의 기록이 되고, “死生在天”이라고 하는 운명론은 이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또는 강화하려는 하는) 객관적 진리다. 이러한 점에서 “사씨왈”의 첨가는 일부수용 방법과 같은 선상에서 설명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보다도 〈계서야담〉에서 원전에 없는 내용이 보태지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야기 주인공 家系의 자세한 기록이다. 한 예를 들어 보겠다. 제89화는 金命元이 젊었을 때 어느 기생을 사랑하였다가 한 종실에게 곤욕을 당할 뻔 하다가 형 金慶元의 도움으로 벗어나고 과거에 급제하여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로 〈자해필담〉에 옮겨온 것이다.

金左相命元 少時落魄於花柳 嘗賄一娼 娼爲宗室某妾 公每躑躅相從 一日夜 爲宗室所縛 事甚急 公兄慶元 時爲掌令 聞知公曹禍 即馳到 則門閉不可入 掌令大號排門而入曰 我乃金慶元也 吾弟氣豪無檢 得罪于左右 罪固當死 但方占式年初試 實學甚精 必捷大科 左右以義氣 聞於一國 何忍以一女子 殺一才子耶 宗室素豪俠好義 即下階仰之 曰吾不料佳秀才有是事也 即令解縛 置酒飲酣 謂曰 君若登今科 我當以是妾奉公 果擢甲科 三日遊街之時 詣宗室家 謝其義 宗室遂以其妾歸之 其女後爲靈川尉所賄 以罪流義州 公方鎮直弘文館 遽出錢于郊 爲量鍊所彈 公任情放達 如此<sup>24)</sup>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김명원의 성품이 放達하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히 김명원이다. 그러나 주인공에게로 초점이 모아지지 못하여 한 기생을 사이에 두고 김명원과 그의 형 그리고 한 종실이라는, 모두가 방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주인공도 김명원뿐이 아니고 이들 세사람 모두인 것처럼 되어 있으며, 김명원은 그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중이 좀 더 큰데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서술 방법은 역사 기록의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고 하는 필기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서야담〉에 옮겨지면서는 “金左相命元”의 가계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된다.

24) 〈자해필담〉 「야승」 권17. p. 七九.

酒隱金忠翼公命元 字應順 慶州人 千齡之孫 萬鈞之子也<sup>25)</sup>

이와 같은 현상은 일차적으로 조선 후기에 강화된 가문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문의식이 강화되면서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 의의를 갖지 못하고 한 집안을 구성하는 식구의 일원으로서의 의미가 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서야담>에서도 인물에 대한 기록이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계 그물 속에서 기록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가문의식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서야담>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저술된 많은 필기류들은 주인공의 가계에 대한 설명이 전대의 필기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필기는 사실과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에 着目하는 양식이다.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요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기록범위를 축소시키려 한다. 야담은 이와 달리 인물 요소에 관심이 큰 양식이다.<sup>26)</sup>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야담에서 인물의 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의미는 바로 인물 요소에 대한 설명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본 김명원에 대한 설명과 같이 주인공의 字, 號, 諡號와 本貫을 밝히고, 선조 중에서 저명한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주인공의 인물 요소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면서 여타의 부분은 원전과 다름이 없으면서도 이야기의 초점이 김명원에게로 모아지고, 이에 따라 애매하게 되어 있던 주인공도 김명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 IV. 結 論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筆記는 '프롤로그-예화-에필로그'의 짜임새를 가지고 '教訓'적인 '事實'을 전달하는 양식이다. 그러나 모든 필기가 다 이와 같은 본래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의 짜임새는 같으면서도 "解頤"적인 내용의 "釋書燕說"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부류가 일찍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조 사대부들은 이들을 구별하여 인식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식은 야담에까지도 연장되는데 이와 같은 미분화된 인식을 통하여 야담은 전대의 필기를 수용한다.

25) <계서야담> 권6 제89화 p. 490.

26) 玄吉彦, 野談의 文學的 意義와 性格 - 18. 9世紀 文獻野談에 대한 試考 - 「韓國言語文學 15집」, (韓國言語文學會 1977)

〈溪西野談〉의 筆記受容은 1) 原典 이야기의 一部受容과, 2) 原典 이야기에 없던 내용을 添加하여 受容하는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앞의 방법은 뒤의 방법에 비하여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프롤로그-예화-에필로그'라는 필기의 구조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생략이다. 이것은 필기의 틀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그 결과 원전 이야기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예화가 한편의 이야기가 된다. 〈계서야담〉은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로 만들어 수용한다. 그러나 다수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용상의 공통점이 있는 경우 이들이 모두 거두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한편 원전 이야기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원전 이야기에서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앞에 "史氏曰"이라는 말을 집어 넣는 것이다. 이것이 첨가되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에피소드와 에필로그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일부 수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이야기 주인공의 家系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의 초점을 주인공에게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살펴 본 변화는 한 이야기에 하나의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원전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성질의 이야기가 된다. 필자는 이것이 野談과 筆記의 樣式上的 차이에서 부터 起因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변화된 이야기의 양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Pilgi*(筆記) in the Work, *Gyesu-Yadam*(溪西野談)

Kim Sang-jo

*Gyesu-Yadam* has a series of 6 volumes. Volumes V and VI has a lot of short episodes quoted from other works in the earlier period. Of the episodes, about 100 showed their original sources which seem to be identified by the writer of *Gyesu-Yadam*. The present paper aims at examining in what way *Pilgi* was adapted to *Yadam*(野談).

*Pilgi* is a writing mode giving instructive facts, following a pattern of 'prolog-(some) episodes-epilog'.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Pilgi* consist of very humorous and wit stories. This pattern of *Pilgi* should be demarcated from that giving instructive facts, but the dignitary in Chosun Kingdom who were indulged in Confucian moral doctrine did not do so. *Pilgi* was adapted to *Yadam* in such a way of undemarcative cognition.

*Pilgi* was adapted to *Yadam* in two ways—abbreviation and addition. There were two patterns of abbreviation. One was the abbreviation of prolog or epilog. The other was to select one among episodes and was to abbreviate the remaining ones. Meanwhile, addition followed such a pattern of history-writer's evaluation which is attached at the last pages of historical biography. Another pattern of addition was to record in details the personal social backgrounds of the hero in the story.

The original stories published in *Pilgi* could not be independent, but rather dependent ones. In comparison to this, the stories published in *Yadam* through the changes specified above were all independent ones.